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5년 03월 11일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는 2월 25일 청년농업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 농지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영북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12ha 농지의 매매·임대를 지원하며 청년농 등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특히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농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